# 태권도 성지 무주, 다시 세계로

## 무주군 · 태권도진흥재단 등, 옥타곤다이아몬드 게임 · 그랑프리 챌린지 등 개최 도시 협약 체결

3일 세계태권도연맹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무주군수,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 게임 등 개최 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무주군(군수 황인홍)이 '2025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 게임'과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대회' 개최지로서 다시 한번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3일 세계태권도연맹 서울본부에서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과 2025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및 그랑프리 챌린지대회 개최 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대회 개최지를 '무주'로 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조직위 구성과 대회 운영 방식 및 절차, 그리고 기관별 역할을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무주군과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 조직위원회를 맡아 대한태권도협회와 같이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및 그랑프리 챌린지대회를 주관할 예정으로 무주군은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예산확보, 대회홍보, 관람객 유치 및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23년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된 그랑프리 챌린지에서 박태준, 서건우 선수 등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배출됐던 만큼 이 두 대회가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올림픽 등용문이 되길 바란다"라며 "세계 태권도 성지, 무주는 개최지로서 선수는 물론, 관람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1~13일에 개최 예정인 2025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에는 20개국에서 6백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태권도 겨루기(복식전, 혼성단체전) 종목에서 경기를 치르며,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에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60개국의 2,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남녀 각각 4체급으로 토너먼트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 대회를 통해 무주를 찾게 될 방문객은 4,000여명으로 무주군은 상권은 물론, 관광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미칠 직간접적 파급 효과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1월 태권도진흥재단과 성공적인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오는 5월 10~14일 '2025 세계 카뎃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UAE 푸자이라에서도 '2026-2027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시리즈 대회' 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4개 국제대회와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대회 등 4개 국내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제5회 장수트레일레이스' 팡파르

### 오늘부터 3일간… 2500여명 선수 참가
### 장수군, 산불 대비 안전한 대회 추진 만전

'한국의 샤모니'를 꿈꾸는 전북 장수군에서 '제5회 장수트레일레이스'가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장수군이 주최하고 ㈜락앤런(대표 김영록)이 주관하는 '제5회 장수트레일레이스'는 70K, 38K-P(팔공산), 38K-J(장안산), 20K, 5K, 4K-VT 총 6개 코스로 진행될 예정이며, 4일 4K-VT 코스를 시작으로 5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진다.

특히 국내와 해외 선수를 포함해 약 2,500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트레일러닝은 인공 트랙이나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잔디나 흙, 숲길 등 자연을 달리는 스포츠로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장수군의 주요 관광명소인 장안산, 팔공산, 동촌리 고분군, 승마로드 등을 배경으로 펼쳐져 참가자들이 장수만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대회가 열리는 본 행사장(장수종합경기장)에서는 장수군의 고품질 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농산물 판매 부스, 다채로운 먹거리와 체험부스 뿐만 아니라 행사를 후원하는 각종 브랜드의 부스도 운영돼 참가자들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장수군은 최근 산불로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인력 감시와 자체 근무 등 산불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하게 대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도내 스포츠 행사 안전관리 역량강화 대책 마련해야"

### 이병철 도의원,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서
### 최근 3년간 도내 개최 체육행사 안전사고 지적
### "국민체육진흥법 따라 다양한 방안 마련돼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이 3일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스포츠 행사 안전관리 역량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달 9일 동학마라톤대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3월 29일 경남 창원 야구장 관중 사망사고 등을 거론하며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관심이 높은 상황에 다중이 운집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서 여전히 위험천만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스포츠안전재단이 발표한 '제3차 스포츠행사 안전사고 통계연보'를 인용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스포츠 행사 안전사고는 무려 1만1,223건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800건까지 감소했던 안전사고는 2023년 3,569건으로 증가해 4년 만에 약 4.5배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개최된 500명 이상 참여 체육행사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체육회 포함) 주관 행사는 17건으로 총 5만4,912명이 참여했고,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전북교육청 주관 행사는 13건으로 1만3,453명이 참가했으나 안전사고에 대한 집계는 없었다. 도교육청은 "경미한 타박상 및 현장 응급처치는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병철 의원은 "그간 큰 사고 없이 스포츠 행사가 개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도교육청이 안전사고를 집계하지 않는 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올해에만 34개의 스포츠 행사 개최를 앞둔 만큼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2023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3에 따라 천 명 이상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교육 및 점검이 의무화된 만큼 도내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행사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의원은 "전북 전주가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후보도시에 선정된 만큼 스포츠 행사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스포츠 선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전북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파크골프 기반 확대… 진안군-파크프로 '맞손'

### 내달 17일 '진안홍삼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

진안군은 국내 파크골프 산업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 기업과 손을 잡았다.

군은 3일 군청 상황실에서 ㈜파크프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파크골프 기반 확대 및 전국 규모 대회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춘성 군수, 백승찬 ㈜파크프로 대표이사, 정봉운 진안군체육회장, 김창주 진안군파크골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국내 파크골프 인구는 현재 25만 명에 달한다. 진안군 역시 파크골프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전국 규모의 '진안홍삼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